

2010년 봄 학기
전 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
메시지 32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술람미의 예표
(3)

성경: 아 2:8-14, 8:1-7, 13-14

- I. 술람미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십자가와의 하나를 통해 자아에서 구출된다—
아 2:8-14, 빌 3:10.
- A. 주님을 추구하는 이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데서 어느 정도 성공한 후, 그리스도의 임재에 있지 못하게 격리시키는 벽이 되는 자기 성찰, 즉 자기 성찰을 하는 자아에 빠진다—아 2:9.
 - B. 자기 성찰이란 자아를 들여다보고 분석하면서 자아를 검사하는 것이다. 자아는 자기 성찰로 조성된다—비교 고전 4:3-4.
 - C.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모든 것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의 자아는 바라볼 가치가 없다—히 12:1-2 상, 요 3:14-15, 12:31-32, 민 21:4-9, 마 16:24.
 - 1. 주님을 추구하는 이는 자기 성찰을 하며 실망하지만, 주님은 봄날에 들어가도록 부르신다—아 2:10, 비교 히 3:7-8, 요 8:58.
 - 2. 자신을 들여다 볼 때에는 동면의 겨울이지만, 눈을 돌이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봄의 단계, 즉 부활의 단계로 들어간다—아 2:10-13.
 - D. 그리스도는 그분을 추구하는 이인 그분의 비둘기가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 머물기를, 즉 가파른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인 그분 안에 머물기를 원하신다—14 절, 갈 2:20, 시 91:1.
 - E.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에 의해, 노루와 어린 사슴, 그리고 ‘새벽의 암사슴’ 으로 예표되신, 산을 달리고 언덕을 넘어오는 그리스도의 임재에 의해서이다—아 2:8-9, 시 22 의 제목, 잠 4:18.
 - F. 우리는 반드시 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풍성이신 그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고전 15:31, 36, 눅 9:23, 빌 3:10, 비교 호 6:1-3.
 - G. 우리는 반드시 시대의 이상과 사역 안으로 들어감으로 의의 길을 취하여, 우리가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다만 죽고 매장되기에 좋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열린 하늘과 하나님의 영의 강림하심과 아버지의 말씀하심을 누려야 한다—마 3:13-17, 21:32, 비교 겔 3:1-3.
 - H. 우리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위해, 복합된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달콤한 효능을 가진 그리스도의 소중한 죽음을 누리고 격퇴하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소중한 부활을 누려야 한다—출 30:23-25, 빌 1:19-21 상.
 - I.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음식이다—마 26:39, 히 10:5-10, 요 4:34.

1.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 안의 각 형제자매가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를 갖도록 교회를 짊어지고 모든 성도를 짊어지는 것이다—엡 4:1-3, 고전 1:10, 빌 2:2.
 2. 신성한 영광 안의 하나는 자아가 완전히 부인되고 우리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몸 중심일 때 실재화된다—요 17:21-23, 고전 12:24-25.
 3. 십자가는 우리의 바깥 환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죽임이 함께 일하여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죽이고 부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개조하는 것이다—고후 4:10-12, 12:7-10, 13:3-4.
 4. 몸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게 하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주님의 믿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분열을 일으키고 죽음을 퍼뜨리는 이들에게서 떠나는 것이다—골 3:12-15, 롬 15:7, 16:17, 민 6:6-7, 레 5:2.
- J.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누려야 한다—고전 2:2, 15:45 하, 58.
- K. 우리는 반드시 생명나무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먹어, 그분을 우리의 매일의 ‘향생제’로 취해야 한다—계 2:7, 벧전 2:24, 3:18, 요 6:57.
- L.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빌 3:3, 살전 3:13, 고후 4:5, 고전 10:31.
- M.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쓴 상황과 쓴 존재에 적용하여,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치유력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출 15:22-27, 벧전 2:24, 계 2:7, 마 9:12.
- N.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자아의 문제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것은 나병환자의 모든 털을 미는 것으로 상징되었다. 이것은 십자가라는 ‘면도날’로 자아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레 14:9.
1. 머리털은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의 영광을 상징한다.
 2. 수염은 사람이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상징한다.
 3. 눈썹은 사람의 타고난 출생에서 나온 뛰어난과 장점과 미덕을 상징한다.
 4. 몸의 털은 사람의 타고난 힘과 재능을 상징한다.

II. 술람미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점유되어 있으므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했고, 휴거될 소망으로 가득하다—아 8:1-4, 14, 시 73:25.

- A. 그녀의 몸이 변형될 때(빌 3:21), 그녀와 주님은 같을 것이고(요일 3:2), 아무도 그녀를 육체 안에서 부족하다고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아 8:1).
- B. 그녀는 육체 때문에 탄식하는 데서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것은 그녀가 그녀의 몸이 구속되어 휴거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가리킨다—2-4 절, 롬 8:23, 고후 5:1-8, 엡 4:30 하.
- C. 그리스도의 연인은 전에 혼자서 영적 광야(세상적인 환경)를 나왔지만(아 3:6),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 그녀의 사랑하는 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어 육체의 광야(땅에 속한 영역)를 나온다(8:5).
1. ‘그녀의 사랑하는 분께 기대고’란 그녀가 주님을 떠나서는 무능하고 행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을 함축한다. 그녀는 자신을 그녀의 사랑하는 분이 데려가실 짐으로 만든다—비교 고후 12:9-10, 13:3-4.
 2. ‘그녀의 사랑하는 분께 기대고’란 야곱처럼 그녀의 허벅지가 침을 받아 그녀의 타고난 힘이 주님께 처리받았다는 것을 함축한다—창 32:24-25.
 3. ‘그녀의 사랑하는 분께 기대고’란 그녀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은 것 같고, 이것은 광야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 같다는 것을 함축한다—비교 고후 1:8-9.

4. ‘그녀의 사랑하는 분께 기대고’란 그녀가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면서 생명나무의 원칙에 따라 살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한다—창 2:9, 비교 히 11:8, 대하 20:12.
- D. 그녀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 그분과 함께 나가고 있다 (비교 마 25:1). 우리의 사랑하는 분께 기쁨으로, 우리는 세상을 뒤에 두고 떠나는 힘이신 그분을 지속적으로 누린다—창 5:22-24, 히 11:5-6.
- E. 그녀는 자신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는 자신의 인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존하심에 달린 것임을 알므로 주님께 그녀를 도장같이 그분의 마음(그분의 지키시는 사랑의 장소)에 두시고 그분의 팔(그분의 보존하시는 능력의 장소)에 두시라고 구한다—아 8:6-7, 살후 3:5, 유 24.
- F.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분의 동산들인 믿는 이들 안에 거주하시는 그분께, 그녀의 동반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녀가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기를 구한다—아 8:13.
1. 이것은 그리스도의 연인들인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시는 분이신 그분을 위해 일할 때 그분과의 교통을 유지하고 항상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킨다—눅 10:38-42, 막 4:16-17, 20, 23-25.
 2. 우리의 생활(새 예루살렘이 되는)은 주님의 말씀에 달려 있고, 우리의 일(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은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적인 중점은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어야 한다—계 2:7, 삼상 3:9-10, 행 22:10.
 - a. 주님은 항상 우리의 귀를 열어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경륜에 따른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신다—사 50:4-5, 출 21:6.
 - b. 둔한 귀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렘 6:10, 행 7:51.
 - c. 죄인들의 귀는 구속하는 피로 정결케 되고 그 영으로 기름 발라져야 한다—레 14:14, 17, 28.
 - d. 제사장들로서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반드시 구속하는 피로 우리의 귀를 정결케 해야 한다—출 29:20, 레 8:23-24.
 3.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계시나 빛이나 지식도 없을 것이다. 믿는 이들의 생활은 전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달려 있다—엡 5:26-27, 요 17:17, 마 4:4, 비교 24:45-51.
- G. 이러한 시적인 책을 결론짓는 기도로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녀의 사랑하시는 분이 그분의 부활의 능력(노루와 어린 사슴) 안에서 속히 오시어 온 땅을 채울 그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왕국(향품들의 산)을 세우시기를 기도한다—아 8:14, 계 11:15, 단 2:35.
1. 그러한 기도는 그리스도의 연인인 요한이 성경을 결론짓는 말로 기도하여 신성한 사랑 안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계시하는 방식으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분의 연인의 결혼의 사랑 안에서의 연결과 교제를 묘사한다—계 22:20, 비교 17 상, 21 절.
 2. “주 예수님, 오십시오.”는 성경의 마지막 기도이다 (20 절). 성경 전체는 기도로 표현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갈망으로 마친다.
 3. “당신이 오실 때 참으로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변하고 찬미는 간구를 대신하게 됩니다. 사랑은 그들이 전혀 없는 완전한 극치에 이를 것이고, 우리는 죄 없는 영역에서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입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위치만 니 전집 23, 노래 중의 노래 156 쪽).